‘불생불멸’ 성품을 증득하라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㉔ 문성(聞性)

〈원문〉 “그때 부처님이 라후라를 시켜 종을 치게 했다. 그리고 아난에게 물었다. 네가 지금 듣느냐, 못 듣느냐? 아난과 대중이 ‘듣습니다’ 고 말했다. 종소리가 쉬어 소리가 없어지자 부처님이 또 물었다. ‘지금은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듣지 못한다고 말했다. 라후라가 또 종을 쳤다. 종이 울리자 부처님이 또 물었다.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또 듣는다고 말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너는 어떤 것을 듣는다 하고, 어떤 것을 듣지 못 한다 하느냐?’ 물었다. 아난이 ‘사뢰되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 듣는다 하고 친지 오래되어 소리가 사라지면 듣지 못한다’ 고 합니다.

여래가 또 라후라를 시켜 종을 치게 하고 아난에게 물었다. ‘지금 소리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아난이 ‘소리가 난다’ 고 말했다. 조금 있다 소리가 사라지자 부처님이 또 물었다. ‘지금 소리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 아난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아난아, 소리가 사라져 없어진 것을 네가 듣지 못한다 말하니, 만약 진실로 들음이 없을진대 듣는 성품(聞性)이 없어져서 고목과 같을 것이니 종을 다시 치는 줄 네가 어찌 알겠느냐? 소리가 있고 없는 것은 성진(聲塵)이 있고 없는 것이지 어찌 너의 듣는 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느냐? 들음(聞)이 진실로 없다면 무엇이 없는 줄 알겠느냐?”

〈강설〉 귀가 소리를 들을 때 보통 소리가 나면 듣는다 하고 소리가 안 나면 못 듣는다고 한다. 〈능엄경〉의 이 대목은 소리가 나건 나지 않건 듣는 것(聞性)은 그대로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내용이다. 라후라를 시켜 종을 치게 하고 ‘듣느냐, 못 듣느냐’ 묻고, 뒤에 다시 종을 치게 해 소리가 나는지 나지 않는지를 물어 소리는 났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듣는 것은 소리가 나고 안 나고 상관없이 항상 듣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소리가 나는 것은 성진(聲塵)이다. 성진은 생멸하지만 듣는 성은 생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육근(六根)의 각 근(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눈의 견(見)이나 코의 문(聞: 냄새를 맡는 것)도 성(性)에서 보면 동일하다. 설사 눈이나 귀, 코 등이 없다고 해도 보고 듣고 맡는 성(性)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제 1권에서 말했듯이 이 성이 여래장묘진여성이다. 이 성(性)이 근(根)에 배대(配對)될 때 보는 성(見性), 듣는 성(聞性)이 된다. 이 성은 변화가 없는 것이므로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코가 막혀 감각기관이 고장이 나도 성(性)은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죽어도 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님도 캄캄한 것을 본다고 했듯이 견(見)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문(聞)도 없어지지 않는다. 소리가 나는 것을 듣는다고 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못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진(聲塵)의 있고 없음일 뿐인데 왜 성진(聲塵)의 유무를 가지고 듣고 못 듣는다 하느냐고 부처님이 아난에게 따져 물은 것이다. 동(動) · 정(靜) · 폐(閉) · 새(塞) · 개(開) · 통(通)을 여의고도 듣는 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소리가 나는 것은 동(動)이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정(靜)이다. 폐새와 개통은 막히고 열리는 것이다. 귀가 막힌다든지 코가 막히는 경우가 폐새이고, 막혔단 것이 트이는 경우가 개통이다.

경 본문의 이 대목 뒤에 꿈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다듬이질하는 방망이 소리나 절구 소리를 듣고, 또는 북소리나 종소리를 듣고 다른 소리로 착각하는 예를 든다. 예를 들면 방아찧는 소리를 북소리로 아는 경우다. 비록 잘못 들었지만 잠을 자다가도 꿈을 꾸어 듣는 수가 있다는 예를 든 것이다. 꿈속에서는 동정, 폐새, 개통을 기억하지 못하여 몸은 비록 잠이 들었지만 듣는 성은 혼미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또 머릿속에 아무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듣는 성품은 남아 있으며 설사 사람이 죽어 몸이 없어져 버린다 해도 듣는 성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불성(佛性) 곧 여래장묘진여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듯 불생불멸하는 성품을 증득(證得)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목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텅 빈 고요함만 현전할 뿐…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㉔ 채약법

황정을 통해 꼬리뼈 순화를 이루고 나면 심 · 식 · 의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본성을 인식하는 각성이 투철해지고 깊은 편안함에 머무르게 된다. 편안함을 누리면서 지극하게 황정을 주시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부터 회음부에서 자극이 올라온다. 움찔거리고 저르르하는 자극이 황정으로 올라온다. 양기가 동하면서 황정이 후끈하게 달아오른다.

양기가 동하는 때를 ‘활자시(活子時)’ 라 한다. 생식호르몬이 생성되는 경로가 완전하게 제도되고 꼬리뼈 순화가 이루어지면 활자시가 되어도 욕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욕정이 제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채약을 이루게 되면 나중에 천마(天魔)의 마장(魔障)에 빠지게 된다. 욕정이 사라진 활자시가 되면 지극하게 황정과 회음을 함께 주시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조짐을 기다린다. 이때의 황정은 이글거리는 화로와 같다. 각성은 투철해서 밖으로부터 어떤 경계가 도래해도 관여되지 않는다. 중심은 뿌듯하고 온몸에서는 기운이 넘쳐난다. 본성은 소소영영(昭昭靈靈)하다. 그런 상태를 음미하고 있다 보면 회음부에서부터 쩌르릉하는 자극이 황정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서 황정이 후끈하게 달아오른다. 이 상태가 바로 첫 번째 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생식호르몬이 황정의 네 가지 에너지와 합쳐져서 생체 에너지로 변화된 것이다. 채약이 이루어지면 생명을 이루는 다섯 가지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진다. 꼬리뼈 순화를 통해 성선신경총의 순화를 이루고 채약을 통해 생식호르몬을 제도하면 일체의 욕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갈애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제도된 갈애심으로 나중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하게 된다. 그것을 ‘등각’ 이라 한다. 생명이 육체를 갖게 된 것도 결국엔 갈애를 해소하기 위해 취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육체를 갖게 됨으로써 생로병사의 사고(四苦)에 들게 되니 결국엔 생사의 고통도 애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채약을 이룬 사람은 애욕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때문에 능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약이 있고 나서 정도 이상으로 황정이 달아오르면 이때는 반신소주천을 행하면서 갈비뼈 순화를 한다.

채약은 세 번 정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완전하게 다섯 가지 기운이 조화를 이룬다. 세 번의 채약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반신 소주천을 통해 황정의 열기를 다스린다. 그 과정에서 갈비뼈에 내재된 세업(細業)들이 씻어진다. 갈비뼈 순화를 하면서 기운이 안정되면 그 기운을 황정에 안착시키고 심 · 식 · 의 화평함을 지극하게 음미한다. 그 상태에 머물러서 새로운 소식이 오기를 기다린다. 심 · 식 · 의의 화평함을 누리면서 본성으로 황정을 비춰보다 보면 한 물건이 일으키는 변화를 접하게 된다. 밝은성품이 증장되면서 기쁨이 일어나고 한 물건과 태양신경총이 반응하면서 중극에서 은은한 진동이 일어난다. 그 상태가 되면 중극과 황정을 함께 비춰본다. 황정의 한 물건을 중극으로 천천히 밀어올린다. 한 물건이 중극에 안착되면 태양신경총 전체가 후끈하게 달아오른다. 그 열기가 가슴신경을 타고 앞가슴으로 이동해 온다. 앞가슴에서 저르르하는 자극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흉곽 전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뿌득 뿌득 흉곽의 뼈들이 새롭게 조립된다. 흉곽이 전면부로 돌출되고 양쪽 젖꼭지에서 자극감이 일어난다. 이 과정을 통해 가슴신경이 순화되고 혈관이 씻어진다. 그러면서 흉곽이 넓어진다. 가슴신경이 순화되고 나면 적막 같은 고요함에 처해지게 된다. 오로지 텅 빈 고요함만 현전할 뿐 아무런 의도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㉔ 유와 무의 본질

오온이 일으킨 생각엔 ‘사실’ 없어

삼라만상은 짝으로 존재하지만, 오직 스스로는 짝이 없다. 짝이 없다는 것은 인지하는 것도, 인지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는데, 감각 기관으로 짝이 없는 그것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지만 그것이 우스운 일인 줄 모르니 계속 찾는 것이다. 훗날 그 모든 행위는 참으로 우스운 일이 될 거라고 스스로는 그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웃음이 끝이라고 말해준다. 찾는 자는 이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어리둥절하여 먹먹할 것이다. 그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뚝 일어나야 하지만 더 철퍼덕 주저앉아 버린다. 하물며 찾고 있는 그 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더욱 확신해 버린다. 본질이 코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내 버린다. 항상 안타까운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서 놓치는 것이다. 그 코앞의 일을, 무엇을 잡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계속 놓치게 된다.

전환하는 것 같지만 전환하는 것도 아니다. 이 일은 짝이 없는 일이다. 갈팡질팡하는 자의 속셈을 완전히 간파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은 없다.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지 않은 것도, 나타난 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도, 모두 무관하다. 이것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나’ 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 자에게는 보이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는 도움이 필요 없고, 도움이 필요 없는 오온은 도움을 주라고 아우성이다. 스스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 없는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 없는 오온이 가운데서 아우성치며 훼방을 놓고 있다. 빛은 도움이 필요 없는 그를 비추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치는 오온은 보지 못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안개가 걷히지 않으면 빛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 또한 인연으로 본다. 본질은 변하는 것이 아니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세간의 사람들은 모두 두 종류의 근본적 생각인 유와 무의 관념을 벗어나지 못해, 그것을 근거로 형이상의 본체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추구한다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성은 근본적으로 진리가 아니네. 그들은 모두 상을 보려고 상을 떠나지만 비록 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

그저 똑같은 일상일 뿐이다. 일상사에 있지만 다른 모양들이 갖는 그런 일상사는 아니다. 단순하다는 것보다 조금 더 단순하다. 간단한 움직임, 간단한 먹거리, 간단한 잠자리 등 간단함이 그의 유일한 활동이다. 그러니 ‘꼭’ 이라는 것이 없다. 쫓기는 것도 없고, 지킬 약속도 없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나약할 수도 있고 게을러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아주 성실하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옆에 둘 수 없는 것을 옆에 둘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둔다. 그는 거짓에는 게으르고, 진실에는 성실하다. 이런 것을 이해시키지도, 이해를 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이끈다. 가르침을 믿게 되면 그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도 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을 따를 필요는 없다. 길을 찾기 위해서는 따라야 하지만 길을 찾았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

오온이 일으키는 생각에는 사실이 없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일어남이 아니다. 오온의 두려움이 사실을 왜곡하여 스스로에게 전가하는 것이니 속으면 안된다. 속는 것은 죽고 나서 처방전이 나오는 꼴과 같으므로 만약 속았더라도 돌아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저 한번 속지 않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일이니, 후회하지도 말아야 한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흔들린 마음이라고 아는 그 마음이다. 흔들리는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다. 어쩌면 오온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달콤한 꿀 한방울에 마음을 빼앗겨 자진하여 속은 것이다. 오온의 모양을 ‘나’ 라고 여기고 부른 순간부터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꼴이 되었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명산대찰의 수천만원

의 시설들! 본사 견본과 법당서 소리 비교시 죄송하지만 한결같이 장난감 소리 차이!

▣ 그 이유 : 본 품은 디지털 염불전문시스템으로 특수제작 (기존품들과 부속이 전혀 다름)

▣ 특징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장 기존시설가에 1/3

본 제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오직! 소리만 비교만 해보는 조건으로 전화하시면 반드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에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및 핀 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충전식 각종 방생용 전문판매, 시설가격 190~사찰 규모따라 비용 추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